

국어

1. 정답 : ③

해설 : 발표자가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3문단에서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 4문단에서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5문단에서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등의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라는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산대’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청중의 대답을 듣고’를 통해 알 수 있고, (청중이)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다면서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2. 정답 : ⑤

해설 : 4문단에서, ㉔에 <자료 3>을 보여 주며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예산대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㉑에 <자료 1>을 활용하였고, 예산대 인형의 종류와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㉒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3. 정답 : ①

해설 : 문제에 제시된, 발표자의 답변을 보면 ‘(인물과 동물은)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라고 했으므로, 예산대 인형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정답 : ④

해설 : [A]에서는 학생이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며 한 다소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서가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서비스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서 사서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⑤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5. 정답 : ④

해설 : 서비스 신청 방법이 본문 중의 [A]에는 나와 있지만, 학생이 쓴 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본문 끝에서 사서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학생은 자신이 쓴 글에 이를 활용하여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정답 : ②

해설 :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은 ‘학생 2’이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학생 2’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선배의 조언을 각각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③ (가)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와 (나)의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마지막 부분의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어느새 올라온 옥수수 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 1’은 ‘설렘’에서 ‘후회’로 변하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학생 2’는 조급해하는 자신의 태도를 친구들과의 관계와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7. 정답 : ④

해설 : ‘노력’은 ‘학생 2’의 글에서는 찾을 수 없다.

8. 정답 : ④

해설 : 예상 독자인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의 1문단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수행한 실험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지 않았다.

②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③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하지 않았다.

9. 정답 : ④

해설 :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시된 두 번째 방안이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는 것이는데, <보기>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거부당한다. 그러므로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④가 정답이다.

10. 정답 : ③

해설 :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아예 삭제했다.

<오답 풀이>

① ‘따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11. 정답 : ①

해설 : 중세 국어의 ‘애/에/예, 익/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의 ‘에’는 ‘지점’의 의미가 있고, ‘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지점’과 ‘공간’의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인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를 보면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서도 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로 쓰인 ‘애셔/에서/예셔, 익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사격 조사로 쓰인 ‘애/에/예, 익/의’가 주격 조사로도 쓰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셔’는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2. 정답 : ①

해설 : ㉠ ‘그 지역에서’의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② ㉡ ‘정부에서’는 집단이며 무정 명사인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것이다.

③ ㉢ ‘할머니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은 것이다.

④ ㉣ ‘그위에서’는 집단이며 무정 명사인 ‘그위(관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것이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에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⑤ ㉤ ‘부터썩셔’는 높임의 유정 명사 ‘부터(부처님)’에 부사격 조사 ‘썩셔’가 붙은 것이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인 ‘썩셔’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13. 정답 : ②

해설 : ‘안팎을’의 경우, ‘안팎’뒤에 결합하는 형태소가 조사인 ‘을’로서 형식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파글]로 발음하는 것은 결국 조사인 형식형태소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 ②

해설 : ‘떠넘기다’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뜨다’와 ‘넘다’를 어근으로 해서, ‘넘다’에 사동접미사 ‘기’가 결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어간’이 3개 이상 이루어져야함을 충족하고 있고, ‘뜨다’와 ‘넘기다’가 직접구성요소로 결합된 합성어이므로 2번 선택지가 적절하다.

15. 정답 : ①

해설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는 문장성분의 개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서술어’의 관계는 1회 이므로 홀문장이기에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16. 정답 : ⑤

해설 : (가)는 ‘도화행화’와 같은 자연물이 ‘석양리’에 피어 있다는 구절을 통해, (나)는 ‘화암이 춘만커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자연물인 ‘도화행화’, ‘화암’ 등을 활용하여 각각 ‘저녁,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다.

17. 정답 : ④

해설 : <3수>에 ‘사람이 승지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는 설의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치인 승지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하고 있기에, 4번이 적절하다.

18. 정답 : ②

해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와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새’라는 자연물에 자연으로부터 환기된 화자의 흥겨움을 투영하여 ‘교태’를 부리는 것처럼 새의 울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으므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을 드러낸다는 2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19. 정답 : ③

해설 : (가)에서 ‘정자’ 앉아서 화자는 ‘한중진미’를 느끼고 있고, (나)에서는 ‘관암’에 해가 비치는 장면을 응시하며 ‘원산이 그림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자’와 ‘관암’ 자체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예찬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3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

20. 정답 : ⑤

해설 : (나)에서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는 눈이 쌓인 도산의 자연풍광을 통해 내면적인 본질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기에,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가 엇보인다’는 논점에서 벗어난 설명이기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

21.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은 일관되게 ‘영화’가 지닌 ‘자료로서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사서술로서의 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22. 정답 : ③

해설 :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매체와 접목시키는 것이 결국은 사료를 발굴하는 것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23. 정답 : ①

해설 :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당시의 유행했던 자표를 활용하여 당시의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것이므로 (가)의 사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당시에 유행했던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활동’과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나)의 사례로 보기에 적절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24. 정답 : ⑤

해설 : ㉠ 역사가의 관점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 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번의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과 일치하고, [A]를 비판하기에 적절한 입장이다.

25. 정답 : ②

해설 :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긴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 된다. 영화 속에 나타는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집단적 무의식과 함께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번의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를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라 하더라도 역사적 독해를 할 수 있다.

26. 정답 : ④

해설 : 어휘 문제.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는 만들거나 구성하는 주되니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므로 ④번의 결합하다는 바꿔 쓸 수 없다.

27. 정답 : ⑤

해설 :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라고 한 ⑤번이 적절하지 않다.

28. 정답 : ⑤

해설 : 유효한 양도 계약에 의해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하는데, 피아노와 같은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적절하다.

29. 정답 : ②

해설 : ㉠과 달리 ㉡과 ㉢은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이다. 그 이유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날 수 있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②번에서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라고 한 것이 적절하다.

30. 정답 : ③

해설 : <보기>의 상황에 따르면 금반지의 소유권은 을이 점유개정을 통해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을이 소유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갑이 소유자로서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소유권이 을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 받을 수 없다.

31. 정답 : ①

해설 : '소유권 박탈이 일어난'과 가장 가까운 의미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의 ①번이다.

32. 정답 : ①

해설 : 장끼와 관련하여 위풍이 현양하고 빛갓쓰고 옥관자 붙이고, 서대주와 관련하여 정주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딱부리와 관련하여 주먹벚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 등으로 세밀하게 외양 묘사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인물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33. 정답 : ⑤

해설 : 딱부리는 서대주를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여 만석이라도 추심할 계획이었으므로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고 했다는 ⑤번이 적절하지 않다.

34. 정답 : ④

해설 :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직접 골을 내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시비 쥐'는 신흥 부호가 아니므로 ④번이 적절하지 않다.

35. 정답 : ②

해설 : (가)에서는 '-다, -노라'의 종결어미를 반복 활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자'의 청유형 종결어미를 반복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36. 정답 : ③

해설 :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고는 있으나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화자의 마음이 포근하고 촉촉해졌음을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

다고 한 것이다.

37. 정답 : ④

해설 :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미루나무 잎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정답 : ⑤

해설 : 둘째 단락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고 한 것은 내용상 일치하는 진술이다.

39. 정답 : ⑤

해설 : 둘째 단락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고,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40. 정답 : ③

해설 : 마지막 단락에서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고 한 것은 근접성 기법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정답 : ③

해설 : 셋째 단락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다섯째 단락에서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비콘3은 거리가 가장 멀고 장애물이 있으므로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특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3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정답 : ②

해설 :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술자(작가)는 주인공 지옥이 최상윤 선생의 신념에 대해 고민하는 내면의 묘사와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고 난 뒤에 피문오의 행패를 감내하고 있는 지옥의 내면 묘사를 통해 지옥이 처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43. 정답 : ⑤

해설 : 피문오 씨는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지옥에게 그 이유를 납득이 가게 말하려고 독촉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4. 정답 : ③

해설 : <보기>를 참고할 때, 주인공이 바라는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가 원하는 의뢰인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 ①

해설 : ㉓는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지옥을 조롱하기 위해 피문오 씨가 하는 말이다. 지옥이 남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것은 물건을 고치거나 파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씹시다아'고 한 것은 '물건사세요'라고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㉓를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